믿음의 공동체

며칠 뒤에 예수께서는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침내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어섰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그때 어떤 중풍환자를 네 사람이 들고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데려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계신 바로 위의 지붕을 벗겨 구멍을 내고 중풍환자를 요에 눕힌 채 예수 앞에 달아 내려 보냈다. 예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환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고 말씀하셨다.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중얼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환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하는 것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걸어 가거라〉하는 것과 어느 편이 더 쉽겠느냐?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사람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환자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여라. 일어나 요를 걷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하고 말씀하셨다. 중풍환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곧 요를 걷어 가지고 나갔다. 그러자 모두들 몹시 놀라고 「이런 일은 정말 처음 보는 일이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본문 마가 2 : 1~12)

위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첫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째로 예수의 선교초기로서 귀신을 내어 쫓고 도를 가르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 교인들과의 충돌이 노출되기 시작하며, 둘째는 예수에게 접근한다는 일이퍽 어렵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한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으며, 셋째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서 도를 가르칠 때 한 중풍환자가 네 사람들에게 들리워서, 이 집에 찾아 왔는데 문이 막혔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저들의 목표는 예수 앞에 이 병자를 보여주는 일이었으며 사태는 매우 긴급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긴박감을 느낄 수 있읍니다. 그들은 사람의 장막에 부딪쳤던 것입니다.

문득 네 사람들 머리에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그것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는 일이었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들것에 실은 병자를 예수 앞에 내려 보내었읍니다. 병세가 긴박하다기보다 예수 앞에 병자를 내어 보내야겠다는 긴급한 심정, 이것이 병자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들것을 들고 온 사람이나 친척들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알 도리는 없읍니다만 예수는 그 환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읍니다.

이 조그마한 사건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생활에 가장 긴급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읍니다. 현대인은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주위에다가 하나의 성벽을 쌓아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읍니다. 즉 하나의 사회구조 속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란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보존만을 위해서 쌓아 놓은 온갖 편견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신앙적인 편견, 학문적인 편견, 심지어는 지방적인 편견의 포로가 되어 있읍니다. 이 편견이라는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벽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서 우리 자신은 뚫고 나갈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흔히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교파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따위의 스테레오 타이프(stereotype)로써 판단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 관계가 이러한 편견 때문에 불신이 조장되고, 소외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편견이 없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이 편견을 다구비하고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의 편견을 더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편견입니다. 인간에게 편견이 없을 수는 없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편견이 없을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견은 그리스도교의 특성에서와 같이 우주대적인 편견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란 이를테면 우주대적인 편견인데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모하는 이러한 우주적인 편견은 온갖 인간적인 자질구레한 편견을 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편견, 즉 인습적인 것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반신불수 환자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긴박감, 인간적인 자질구레한 편견을 꿰뚫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야만 하겠다는 긴박감이 없는 순간부터 그 생활은 죽은 생활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막혀버린 답답한 생활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막혀버린 생활입니다. 그러한 생활은 개미가 쳇바퀴를 도는 생활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아무런 탈출구도 없읍니다. 얼마나 답답한 생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해방이라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주변에 쌓인 인간적인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크신 편견에 잡혀버리는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해방을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밖의 모든 것을 잃고도 그 모든 것을 보물같이 여겼읍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는 것입니다.」(빌립보3:8)

그다음, 이 사건에서 특별히 관찰해야 할 사람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반신불수 환자를 들고 온 네 사람입니다. 그들은 친척인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반신불수 환자의 긴박한 사정에 참여했읍니다. 긴박한 사정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가옥 파손죄로 고발당할 것도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였읍니다. 아마 현대인들 같으면 먼저 체면을 생각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집주인에게 고발당할 것을 두려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참여의 모습을 볼 수 있읍니다. 반신불수라면 육체적인 병을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할 수도 있읍니다.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구속 속에서 마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경제적인 빈곤으로 하루 끼니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는 현실 속에 사는 수많은 한국의 반신불수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와같은 현실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읍니다.

현실이 긴박해질수록 우리는 자칫하면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만 살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신불수를 들것에 메고 그리스도 앞으로 찾아 나가는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읍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도 개인주의적이고 소시민적인 정신의 소유자로서 기독교인만의 게토 (Ghetto) 생활을 고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이웃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의 굶주림엔 아랑곳 없이 그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야말로 닫힌 생활을 하고 있지나 않는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사회 속에는 자기 중심주의 풍조가 짙어갑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웃·골육의 형제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겠다는 태도가 너무나 결핍되어 있읍니다. 남의 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속셈만을 채우겠다는 아귀다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이야기는 꿈과 같은 권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중풍병자를 들고서 지붕에까지 올라가는 용기가 요청됩니다. 말하자면 공동 운명의 의식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공동 운명의 의식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읍니다. 인간 존재는 인간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읍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이란 한낱 추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실존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까뮈의 소설 〈전락〉에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문이 닫힌 방,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안에서 온갖 승강이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린 「지옥이란 다름아닌 타인이다」라는 말이 있읍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온갖 구질구질한 사건들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갈등은 이러한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구질구질한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타격을 받을 때면 저절로 우리는 나 혼자 살았으면 이런 타격을 받지 않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까뮈의 말처럼 지옥이란 나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고독과 고립 속에서 살면 더 충실한 생활을 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관계에서 떠나는 순간 오히려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그 방안에 있던 사람들이 방문이 활짝 열려서 나갈 수 있게 되어도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었읍니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나는 내 동족인 형제를 위해서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오히려 한이 없겠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동족에 대한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들것에 누워 있는 중풍환자를 고치실 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하셨읍니다.

끝으로 결론을 말한다면, 이 조그마한 사건, 가베나움의 한 집안에서 생긴 사건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장벽, 편견, 인습을 뚫은 것은 여기에 등장한 군중이나 들것을 든 네 사람이나 반신불수 환자의 영웅적인, 기발한 행동 자체는 아닙니다. 그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드라마는 주변에서 연출되어지지만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혁명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들(들것을 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환자의 죄를 사하셨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간단없이 이러한 그의 혁명의 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의 촛점을 여기에 둘 때에 역사의 수수께끼를 바로 알 수가 있읍니다. 제미니 6호, 7호의 랑데뷰는 과학적인 혁명이라고 하겠읍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후진국가들의 혁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읍니다. 인간의 사고, 사상에도 급격한 변화가 생겨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징조입니다. 바티칸 카운슬(Vatical Council)에서 볼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혁명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읍니다. 그리스도의 수육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눈 앞에서 자꾸만 전개되고 있읍니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우리가 과연 인간과 자연의 장벽을 뚫고 인습과 타성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수육,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증언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1965. 12. 19.)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